

'제42회 전북연극제' 26일 개막

'제44회 대한민국연극제' 전북 대표 참가할 극단 선발

전북을 대표해 전국 무대에 오를 극단을 선발하는 '제42회 전북연극제'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열린다.

이번 연극제는 (사)한국연극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가 주관하며,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4회 대한민국연극제'에 전북 대표로 참가할 극단을 선발하는 지역 예선 형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연극제에는 전북에서 활동하는 두 극단이 참여해 창작극을 선보인다. 공연은 연극제 기간 동안 매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된다.

26일에는 극단 새로고침의 작품 'METEOR : 떨어지는 별'이 무대에 오른다. 이 작품은 인공자능 예측 시스템 '오라클'이 모든 것을 계산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지구로 향하는 소행성 충돌 가능성이 발표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시스템이 전주의 한 무대 연출가 '배대오'를 위한 집중 좌표로 지목하고 충돌 확률을 발표하면서 국가가 대피를 시작하고, 언론과 종교단체, 시민들의 다양한 반응 속에서 사회적 혼란이 커지는 과정을 그린다.



극단 새로고침 'METEOR : 떨어지는 별' 포스터

28일에는 예술집단 고하의 창작극 '오랏꽃이 피었다'가 공연된다. 이 작품은 일본으로 강제 유학을 떠난 뒤 37년 만에 귀국한 덕혜옹주의 삶을 모티브로 한다. 창작극 낙산제에서 지내

던 덕혜옹주가 과거의 기억에 시달리다 창경원을 찾은 어느 날 어린 시절의 자신을 마주하며 잊고 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과정을 통해 한 인간으로서 겪었던 상처와 기억을 무대 위에 풀어낸다.

연극제 시상식은 28일 오후 9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QR코드를 통한 사전 예약 후 관람할 수 있다.

이미진 전북연극협회 회장은 "제27대 지회장 취임 이후 처음 준비하는 연극제라 더욱 특별하고 소중하게 느껴진다"며 "설렘과 책임, 감사의 마음으로 연극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무대에는 극단 예술집단 고하와 극단 새로고침 두 단체가 참여하며 모두 창작극으로 관객과 만나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용기와 열정이 전북 연극의 힘"이라고 밝혔다.

또 "연극제가 경쟁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서로의 노력과 시간을 존중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선의의 경쟁 속에서 더 좋은 공연으로 관객과 만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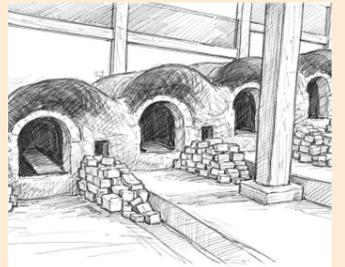
한편 '제44회 대한민국연극제 부산'은 오는 7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부산 영화의전당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6부 '굿패와 수녀' (1)

밥은 먹었어?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강남준은 무장면으로 갈지 고창읍으로 갈지 정하지 못한 어정정한 걸음으로 길을 따라 선운산을 벗어났다.

무장면으로 가서 학도대로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고창읍 외가로 돌아가는 것도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으므로 어디든 의탁해야 했는데 무장면으로 갈지 고창읍으로 갈지 망설이며 걸다보니 무장정 동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신작로에서 이런 저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모두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다. 가끔 누더기 옷에 강퍽을 팔아 건 어린 거지들을 만났는데 아주 어린 꼬마 아이들도 섞여 있었다.

하나같이 거무튀튀한 검댕이를 얼굴에 덕지덕지 칠하고 있었는데 흠치거나 얻어온 감자나 보리를 구워먹은 흔적들이었다.

그들은 아무나 붙잡고 먹을 것이나 돈을 달라 애걸했는데 부탁하는 걸이나 부탁을 받는 행인이나 행색이 거저서 거저였다.

남준도 비슷한 옷차림이라 꼬마 거지들은 동중업계 사람으로 봤는지 구걸은 하지 않고 자기들 작업구역에 침범한 침입자로 취급하고 돌을 던지며 들고 있는 막대기를 들고 쫓아와 남준은 빠른 걸음으로 그들에게서 벗어났다.

무장정 남쪽 방향으로 걸어내려 왔는데 선운산으로부터 얼마만큼 내려왔는지 무장면이나 고창읍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나같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않은 상태라 머리가 핑핑 돌아 어디든 가서 물이라도 한바가지 얻어 마시고 싶었다.

저 앞에 대낮에 무슨 불을 때는지 가정집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보다 더 많은 연기가 하늘을 향해 피어오르는 게 보였다. 가까이 가보니 커다란 무덤 형태의 돌 구조의 구조물 지붕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동근 공을 반 잘라 덮은 것 같은 동근 구조물 아홉 개가 초가로 이은 막 안에 일렬로 위로 점점 올라가면서 불어서 배치되어 있었는데, 구조물 앞 입구에 장작을 넣고 불을 때고 있었다. 남준은 처음 보는 구조물이었다.

"물종 언어먹을 수 있어요?"

땀을 흘리며 커다란 통나무를 짊어 나르고 있는 사내에게 남준은 부탁했다.

"저 뒤로 돌아가면 시일이 있으니까 가서 퍼서 마셔."

집 뒤로 돌아가자 우물이 있었고 뒤옹박

이 보여 물을 퍼서 마신 뒤에 주변을 살았는데 아까 봤던 구조물을 가진 집들이 많았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 고수면 남산리 장암마을이라고 하지. 사람들이 웅기마을이라고 하. 똥장이나 고창장 담은 장독을 땡그는 곳이야."

사내는 말을 하고는 장작더미에 가서 장작을 팔 가득 담아 들었다. 가지고 오다가 장작 몇 개가 바닥에 떨어져 남준은 떨어진 장작을 얼른 주워 사내가 장작더미를 들고 간 가마 아궁이로 가져가 아궁이에 넣었다.

"저 안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장독들이 들어 있지. 흙으로 장독을 만들어서 햇볕에 말렸다가 여기 가마사 불을 때서 단단하게 만드는 거야."

"몇 시간이나 때요?"

"하루는 때야지. 그래야 단단하잖아."

사내는 남준의 매무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남준이 뭘 원하는지 알았다는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왜? 일 한번 허벌티어?"

"예, 하게 해주시면 감사하지요."

"밥은 먹었어?"

남준은 슬며시 고개를 떨어뜨리며 머리를 저었다.

"그러? 때가 되었으니까 일단은 그럼 밥부터 먹고"

남준은 사내를 따라갔다.

이 마을은 고창에서도 유명한, 웅기를 만드는 웅기장이 마을이었다. 마을 주민 전체가 가마를 가지고 웅기를 만들고 있었다. 마을 주변에 웅기 만드는데 적합한 흙이 많아서 500여 년 이상 이 마을에서 웅기를 만들고 있었다.

남준은 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어 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당분간 이곳에 머물기로 했다.

춘향의 가치 세계에 알리는 '문화 메신저' 찾는다

남원시,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참가자 27일까지 모집

남원시와 춘향제전위원회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남원시 일원에서 개최하는 제96회 춘향제를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킨다'라는 주제로, 춘향의 숭고한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함과 동시에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호흡하는 '소통형 축제'로 꾸밀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에 한국의 미(美)와 정신을 알릴 제96회 춘향제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가 오는 3월 27일 참가자 모집 마감을 앞두고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이어 글로벌 부문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한다. 국적과 언어의 경계를

넘어 춘향의 핵심 가치인 지혜, 용기, 그리고 당당한 아름다움을 갖춘 인재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대회는 엄격한 서류심사와 예선심사를 거쳐, 오는 4월 30일 본선 무대에서 최종 주인공을 선정, 전문 심사위원단이 전 과정에 참여해 공정성을 확보하며, 최종 수상자는 남원시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되며, 선발 춘향은 향후 국내외 문화 행사 및 홍보 콘텐츠 제작 등에 참여하며 춘향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 메신저'로 활약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는 춘향의 가치를 세계로 있는 소중한 문화 가



교가 될 것"이라며, "확대된 기회 속에서 춘향의 멋과 정신을 세계 무대에 펼쳐 보일 재능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산시, 지역유산활용 공연·길거리공연 지원사업 운영단체 모집

군산시가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지역유산활용 공연사업'과 '2026년 길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사업'의 운영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올해 신설된 '지역유산활용 공연사업'은 군산이 보유한 풍부한 역사·문화 자산을 현대적인 공연 콘텐츠(연극, 음악, 무용 등)로 재해

석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군산만의 독창적인 '핵심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유산의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군산만의 고유한 지역 문화와 유산을 공연 콘텐츠로 풀어내는 '지역유산활용 공연사업'은 1개 단체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선정된 단체는 사업 기간 중 최소 4회 이상의 공연을 진행해야 한다.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 접점을 넓혀온 '길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사업'도 함께 공모를 진행한다. 단체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거리 예술가들의 안정적인 공연 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두 사업 모두 이달 12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신청받으며,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이 필수 조건이다.

접수는 신청 단체의 편의를 위해 이메일 접수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매)을 통해 동시에 진행된다. /군산=김민호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